

어버이날 복운축제·자비나눔 그리기대회·이주 노동자 템플스테이·한마음 명랑운동회

# 5월, 가족·이웃을 돌아보는 달



(좌측)근로자의 날을 맞아 선운사에 초대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떡메치기를 하고 있다. (우측)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4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고창지역 500여 명을 초대해 '2010년 어버이날 복운축제'를 개최했다. 복지관 스님이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 지역 사찰 및 불교계 단체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축제로 들쭉인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직원들이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 효(孝)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읍불교청년회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청소년들을 위한 자비나눔 그리기 행사를 실시했다. 고창 선운사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해 이주 노동자 템플스테이 열고,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어버이날 복운(福雲)축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가족의 소중함과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행사가 개최됐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궁)은 지난 5월 4일 고창복지관 대강당에서 지역의 어르신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2010년 어버이날 복운축제'를 개최했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손자손녀들의 재롱잔치, 에버그린밴드의 흥겨운 연주와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벨리 댄스,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했다. 무궁 스님은 "어르신들의 은혜에 백만분의 일도 갚을 길이 없지만, 오늘날이라도 여러 어르신들에게 작은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고창지역에 효의식의 실천과 따뜻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나눔 그리기대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읍불교청년회(회장

최민철)는 5월 1일 정읍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자비나눔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자비나눔그리기 대회는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로 정읍지역의 유치원, 초·중등생과 학부모 1000여 명이 동참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읍 청년회 지도법사 승천스님은 격려사에서 "기도하고 불공하는 마음을 그림에 담아 오 탁아소에 사는 학생들이 심신의 정화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철 정읍청년회장도 "청소년들의 문화에

## 효의 의미와 불교의 뜻 전하는 다양한 축제 열려

술 활동을 통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전북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5월 1~2일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마련했다. 이번 선운사 이주노동자 템플스테이는 네팔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가 참여해 예불, 참선, 명상, 도솔암 포행 등 불교의

수행법을 체험하고 연등을 직접 만들었다. 연등에 담긴 의미 등 부처님오신날 관련 풍습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전통체험으로는 떡메치기, 인절미 만들기, 판소리 배우고 따라해 보기 등이 진행됐다. 법만 스님은 "뜻 깊은 불교문화 체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선운사 방문 기념으로 다포 등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불교인 한마음 명랑운동회  
익산 지역의 불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불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익산불교신도회(회장 박중근)는 5월 2일 익산 마한교육문화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익산 불교인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운동회에는 스님과 재가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익산 사암연합회장 우성 스님, 정각사 정산 스님 등 익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익산지역의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우성 스님은 "익산지역에 처음으로 마련된 한마음 운동회라 여러 가지 미흡했지만 모든 불자들이 함께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상살이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박중근 신도회장은 대회사에서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한마음이 돼 게임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마음껏 웃고 즐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익산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뜻으로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처세를 허공과 같이 깨끗하게”

###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 제14대 총무원장 호산 스님

“광주전남 태고종도들의 마음을 모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의 제14대 신임원장 호산 스님의 취임법회가 광주 조선킨벤션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13대 총무원장 금명 스님, 14대 총무원장 호산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단법인광주전통불교영신회(회장 혜령)의 영산다계작법시연을 시작으로 종사이운, 불교의례, 신임 원장 임명장 수여, 화환증정, 이문사, 취임사, 축사, 법어, 아유를 국악 실내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이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 제14대 총무원장 호산 스님이 임명장을 받고있다.

어졌다.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화엄경> <비로자나품>의 법구를 인용해 “사바세계에는 유혹이 많은 세상이니, 처세를 허공과 같이 깨끗하게 잘 해야한다”며 “연꽃이 진흙에서 자라 고 있지만, 진흙 물이 묻지 않는 것

과 같이, 어떤 유혹에도 집착하지 말고 종무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 4년간 대중들과 화합해 광주전남총무원을 맡아 원만히 수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호산 스님은 법어에 앞서 취임사에서 향후 총무원이 실천해야할 정진·화합·준비라는 세 가지 화두를 제시했다. 호산 스님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불자들에게 자비와 희망의 등불이 되는

종무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신임 총무원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총무원 회원사찰을 비롯해 각 시도회 임원 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신임 총무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가족과 함께라서 더욱 큰행복 제1회 광주지역다문화가족큰잔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광주 대광사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다. 해프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다문화가족 큰잔치를 개최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다문화가족에게 행복한 간을 선사하는 잔치마당이 광주지역에서 열렸다.

해프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대표 정선)는 광주 대광사에서 다문화가족 100여 명을 초청 '제1회 광주지역다문화가족큰잔치'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다문화가족 간의 가족애와 화합을 위한 행사는 2팀으로 나누어 전래놀이 중 단체 줄넘기, 꼬리잡

기 등의 행사로 시작됐다. 또 보물찾기, 선물증정, 행운권 추첨 등의 한국인들의 기본 놀이 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대광사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는 웃음 소리가 넘쳤다.

해프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2월 광주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음식공양 대법회 여수 지장대사

100가지의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족, 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특별한 법회가 봉행됐다.

전남 여수 지장대사(주지 정현)는 지난 5월 2일 '지장대불 100가지 음식공양 대법회'를 봉행했다.

'100가지 음식공양'이란 육법공양을 포함해 100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전부 올려 부처님을 찬탄하는 의식이다. 이날 법회에는 쌀, 과일, 과자, 전, 해산물 등 지역의 특산물 등이 신도들의 정성으로 부처님 전에 올려졌다.

정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보살님께 100가지 음식공양을 올리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평안을 바라는 최고의 공양”이라며, “지혜로운 자와 중생의 차이는 자신의 삶을 바로 보고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번 법회를 통해 지혜로운 이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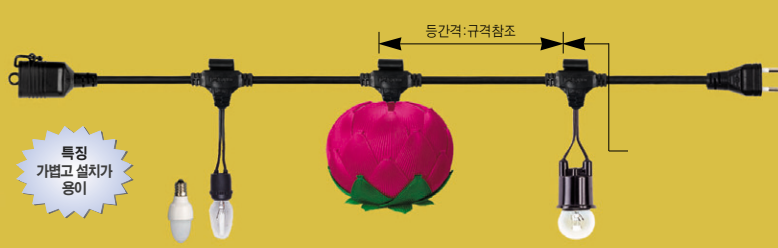
한편, 지장대사는 2004년부터 매년 음력 봄과 가을 지장대불과 관음대불 앞에서 불자들이 실시할 법회를 정성으로 마련한 100가지 음식 공양하는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범당용, 외곽용
- ▶ 휘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휘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건전지용초, 방생, 탈들이 행사용
-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 연 등 (정품)

범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